

오월의 '가슴의 피'는 이루셨는지요

5·18 민주항쟁 28주기 추모시 - 전 속 시인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순한 기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오지랖 넓은 마음을 펼쳐, 번득이는 살기를 막아내고
 품안에 깃든 못생명을 감싸 안는 기사처럼
 어머니는 어린 나무들의 순한 비람막이였지요
 무릎의 오월은 '화려한' 꽃밭이었습니
 돌연히 휘몰아쳐 광란의 춤을 즐기던 쓰나미의 '휴가'는
 꽃나들이하던 평화를 밀바닥까지 뒤집어 흔들었습니다
 무참하게 일그러진 꽃밭의
 간절한 기도는 핏줄 핏줄이 터져 흘날리고
 무덤으로 달려오던 길들이 풀썩 주저앉고
 머리띠 질끈 동여맨 불초롱마저 빛을 놓아버렸습니다
 매듭매듭 부어오른 무덤의 관절들이
 깊은 동굴에서 아프게 아프게 울었습니다
 '내미는 손 그늘 지나치는 법이 아니란다' 늘 당부하셨지요
 땅이 움푹 꺼지는 그 막막한 허당에도
 우후죽순처럼 돌아나는 마음들 있었습니
 문연히 펼쳐 일어난 푸른 혈액의 기사들은
 마음 마음을 모두어 주먹밥을 문쳤습니
 찢힌 상처들의 눈물로 문쳐진 주먹밥은
 그 아픔의 뿌리가 나무 깊어서
 아무리 사나운 파도가 덮쳐도
 차마 마주 잡은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운명 같은 아픔을 드러내고
 다시는 순한 눈물들이 상처입지 않도록
 캄캄한 꽃밭의 저울눈을 깨우는
 봄갓밭의 첫 울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나 돌이키지 못할 것 같은
 검은 무덤에도 지금쯤 새살이 차올라
 어린 갈뿔빛 수줍게 빛나는지요
 돌아온 꽃밭 가슴 가슴 함초롬히 피어난
 누이도 그날의 햇색처럼 곱게 웃는지요
 '엄니' 부르며 음방 들어설 것 같은 빈자리
 꺾꺾처럼 어루만지면, 구극간장 굽이굽이
 밤새 예 돌아 울적이던 '가슴의 피'는 이루셨는지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순한 기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2008년 5월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제에서>



5월 정신계승 국민대회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5·18 광주민주항쟁 제28주년 행사의 하나인 '5월 정신계승 국민대회'가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민·학생 등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초등생들, 묘지 784기 일일이 참배

5·18 이모저모

○5·18 광주민주항쟁 28주년인 1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초등 대안학교인 자유학교 학생 13명이 5·18 묘지를 찾아 묘지에 있는 784기를 돌며 일일이 참배해 다른 추모객들이 감탄.

이 학교 학생 백지후(12)군은 "책에서만 보던 수 백명의 5월 영령들에게 모두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며 "끝내고 나니 목과 어깨가 아프긴 하지만 후련한 기분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함박 웃음.

'대통령님 힘내세요' 연호

○5·18 28주년 기념식이 열린 18일 오전 한나라당 지지자 40여명이 5·18묘지 앞에 대기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도착하자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열렬히 "이명박"을 연호. 한 참가자는 "여론이 악화하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

안타까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참석했다"고 설명. 이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치고 행사장을 빠져나가 다 잠시 차창을 열고 손을 흔들며 이들에게 화답.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

○베이징 올림픽 남북공동응원을 위한 국토대장정을 추진중인 대한청년클럽(YGK·Young Great Korea)은 18일 5·18묘지에서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를 개최. YGK 회원 30여명은 기념식이 끝난 직후 추념문 앞 계단에서 가로 10m·세로 6m 크기의 대형 태극기를 펼쳐보이며 5·18 영령들의 넋을 위로. YGK 회원들은 "대한민국의 청년들로서 5·18을 기념해 민주인권도시인 광주를 찾았다"며 "국토 대장정이 시작되면 꼭 광주를 다시 찾을 것"이라고 다짐.

대만 교수에 민중가요 선불

○광주 살레시오고 학생회 간부

들은 지난 17일 5·18 묘지를 찾아 학교 선배인 윤상원 열사 추모식을 하던 중 주시시(55·대만국립정치대학교 교수)씨의 요청을 받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선사. 1987년 6월 항쟁 당시 대만 연방보신문사 특파원으로 한국에서 근무했던 주시시는 "6월 항쟁 당시 온누리에 울려 퍼졌던 민중가요를 다시 들으니 감회가 새롭다"고 감사.

여학생 계엄군들 '눈길'

○지난 17일 밤 금남로에서 열린 5·18 전야제의 하이라이트인 '계엄군과 시민군의 투석전' 재현 행사에 계엄군으로 참여한 담양 한빛고 학생들의 3분의 2가 여학생들이어서 눈길. 시민들은 "이렇게 예쁜 학생들이 계엄군이었다면, 쫓아내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웃음. 계엄군으로 참여한 여학생 지원자가 훨씬 많았다고 설명.

/안현주·이종형·강필경기자 ahj@

우산 챙기세요
비가 온 후 점차 개겠다.

5월 19일
(음 4월 15일)

◇전국날씨

광주	비후	14~22
주요	비후	14~19
포수	비후	16~21
완구	비후	15~22
해장	비후	14~23
고	비후	15~23
순	비후	16~23
영	비후	14~23
진	비후	16~23
진	비후	13~21
남	비후	15~21
도	비후	13~23
남	비후	14~23
해	비후	10~16

서해남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5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동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1:43 썰물 < 06:59
 13:32 썰물 < 18:52
 여수 밀물 < 08:21 썰물 < 02:32
 21:01 썰물 < 14:20

▲해돋이 05:26 ▲해질 19:32 ▲달돋 19:03 ▲달질 04:2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0(화)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날씨						
최저/최고	10/25	13/27	13/28	14/28	16/25	14/27

252km 걸어서 광주까지

대구 달구벌 고교생들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다. '대구에서 광주까지'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국도를 따라 252km를 걸었다. 하루 8시간의 강행군에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얼굴은 발갛게 익었다.

광주에 온 학생들은 대안학교인 대구 달구벌 고교생 24명(교사 2명 포함). 주로 등산·여행담당사 관련 수업을 배우는 이들은 자립 체험프로그램 일환으로 '대구에서 광주까지 5·18 국토횡단'을 계획했다. 학생들은 국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여학생 지원자가 훨씬 많았다고 설명.

오연주(여·17) 학생은 "힘든 길이었지만 광주에 오는 동안 많은 걸 보고 느꼈다"며 "광주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광주에 와보니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학생을 인솔한 신동혁(34) 교사는 "학교에서 5·18에 대한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나눔과 섬김에 대한 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같은 프로젝트를 마련했는데, 학생들이 광주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은 이날 광주시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 행사에 참여한 뒤 하룻밤을 묵고 버스 편으로 대구로 돌아갔다. /이종형 기자 glee@

2009년 공무원시험 신청 응시연생제헌 해지로 공무원 시험 응원 귀하를 광주 '한빛고시학원'이 후원합니다.

강릉 공무원시험 [국간직] 합격! 최강퍼펙트강좌

www.hanbitgosi.com
 010-9700-1111
 010-9700-1112
 010-9700-1113

김이현반 김경희 반 43명 반 **몰이론박수민** 서울신문지인이 **법정법** **생기법** **농업법**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준비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빛고시학원 개강 6월 2일

한빛고시학원 공무원학원

상록스크린골프 대회

메카패스 배

상록스크린골프대회

21일 31일 41일

21일 31일 41일

예약문의 및 접수: 062-361-8837

SONY BRAVIA

고객감사 大 축제

42인치 Full HD TV HDR-SR12

HDR-SR12

120 48